

대한상의 브리프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제108호 2019년 10월 28일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이 두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활용을 보다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는 일본의 2018년 근로시간 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근로시간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주 52시간제가 대·중견기업에 적용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근로시간이 짧아지면서 직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부족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에 여유가 부족한 만큼,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비용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근로환경이나 근무방식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지난해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에 나섰다. 최근 일본의 고용시장 회복 요인의 하나로 근로시간 개혁이 꼽히고 있어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韓·日 공통의 문제점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생산성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8년 기준 1,99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오래 일하는 국가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짧은 1,680시간이지만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근로자 비율은 20%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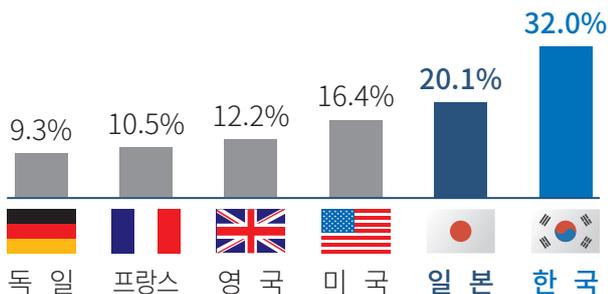
이렇다 보니 양국 모두 서구국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로 OECD 국가 중 31위이며, 일본 역시 41.5달러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생산성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문제이고, 그 개선 없이는 더 이상 국가경쟁력 제고가 어렵다는 것 또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전체 근로자 中 장시간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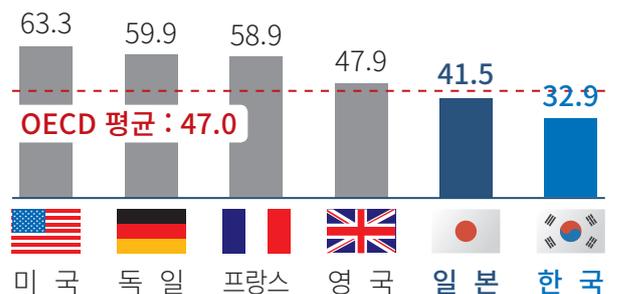
* 주 49시간 이상 근로자



※ 출처 :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16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US\$)



※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2016년)

韓·日 해법의 차이점

근로시간만 단축 vs. 유연성도 보장

한국과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는 ‘유연성’ 보장을 함께 추진했느냐 여부다. 일본은 장시간근로 해소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는 접근방식을 취했다. 반면, 한국은 노동생산성 제고보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목적을 우선해 ‘先근로시간 단축, 後부작용 보완’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노사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다. 기업은 장시간근로 개선을 받아들이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를 수용함으로써 균형잡힌 입법이 가능했고 이후 바뀐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만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주요내용

일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동일노동·동일임금)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 △장시간 노동의 시정 △유연근무 정비 △일·가정 양립 △전직·재취업 지원 △외국인재 수용 △고령자 취업촉진 등 9개 정책이다.

이중 장시간근로 개선은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유연근무제도를 정비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개혁의 핵심적 내용이다.

①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유연성 보장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은 그간 노사가 합의하면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연장근로를 법률로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전까지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한국과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 비교]

 한국	구분	 일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	월 45시간, 연 360시간
재해·재난시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가	연장근로 추가 허용	업무량 폭증시 노사합의로 연 720시간까지 허용
보건업, 운송업	연장근로 적용 제외	신기술·신상품 등 연구개발업무
① 탄력근로제 : 단위기간 3개월 ② 선택근로제 : 단위기간 1개월 ③ 재량근로제 : R&D 등 전문업무 ④ Whit-collar exemption 없음	유연근로 제도	① 탄력근로제 : 단위기간 최대 1년 ② 선택근로제 : 단위기간 3개월 ③ 재량근로제 : 전문형&기획업무형 ④ 탈(脫)시간급제 도입(고소득 전문직)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일본은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했다. 다만, 한국처럼 상한을 '주'가 아닌 '월' 단위로 규정함으로써 특정 주에 일이 몰릴 경우 1개월 총 45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했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도입해 필요 시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건설공기 단축, 제품 납기이행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협정을 통해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일본의 연장근로제도 변경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본 원칙	· 월 45시간, 연 360시간
특별 허용	· 연 720시간 이내 단, 월 45시간 초과는 年 6회 허용

② 고소득 전문직 대상 탈(脫)시간급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해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탈(脫)시간급 제도도 도입했다. 금융애널리스트·연구개발업무 등 전문직이면서 年수입 1,075만 엔 이상인 경우 본인의 동의와 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젼션'과 비슷한 제도로 업무시간과 업무성과가 일치하지 않는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탈시간급(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연봉 1,075만 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
적용 특례	· 근로시간·연장·휴일 규정 적용 제외
가산 수당	· 할증임금 적용 제외
도입 절차	· 근로자 동의&노사위원회 결의 · 건강권 보호조치 필요

국내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정책 중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만큼 제도 변화의 영향과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다만, 한·일 양국이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는 공통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만큼 근로시간 활용에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탄력근로제 개선안의 입법은 물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일본의 탈시간급제와 같은 '포괄적인 근로시간 제외 제도'의 도입이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를 넘어 노동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과 고령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거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19년 10월 28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7	2018 ^(E)	IMF		OECD	
			2019 ^(P)	2020 ^(P)	2019 ^(P)	2020 ^(P)
한국	3.1	2.7	2.0	2.2	2.1	2.3
세계	3.7	3.6	3.0	3.4	2.9	3.0
미국	2.2	2.9	2.4	2.1	2.4	2.0
중국	6.8	6.6	6.1	5.8	6.1	5.7
일본	1.9	0.8	0.9	0.5	1.0	0.6
EU	2.5	1.8	1.2	1.4	1.1	1.0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2018	'19.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1,161	1,131	1,100	1,183	1,176	1,175	1,209	1,198
원/엔(100엔)	1,068	1,009	996	1,076	1,088	1,086	1,137	1,116
원/위안	174.4	167.5	166.4	172.1	170.0	170.9	171.0	168.0
원/유로	1,283	1,276	1,299	1,324	1,327	1,319	1,346	1,319
유가(Dubai)	53.8	53.2	69.7	69.3	61.8	63.3	59.1	61.1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19.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생산	3.0	2.5	1.4	1.3	-0.8	0.5	0.2	-
소매판매	3.9	1.9	4.3	3.4	1.2	-0.3	4.1	-
설비투자	-1.3	14.1	-3.8	-10.0	-9.0	-4.7	-2.7	-
수출	-5.9	15.8	5.4	-9.8	-13.8	-11.0	-13.6	-11.7
수입	-6.9	17.8	11.9	-1.9	-10.9	-2.7	-4.2	-5.6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